

# 언어의 한계 극단으로 실험한 '인간곡'

《피네간의 경야經夜》번역한 김종건 교수



30여년 동안 조이스 연구에 매진해온 김종건 교수(68, 전 고려대 영어 교육과 교수, 한국 제임스 조이스 학회 고문)가 지난 3월 너무도 어려워 해독이 불가하다는 《피네간의 경야經夜》(제임스 조이스, 범우사)를 완벽해 명실상부하게 조이스전집을 마무리했다. 이런 김교수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조이스의 전모가 공개됐다.

### 꿈과 현실, 신화, 전설 얽힌 대서사시

이 책은 술집주인 이어위커의 하룻밤 꿈과 현실, 신화, 전설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다. 아일랜드 민요 《피네간의 경야》에서 제목과 틀을 따오고, 인간의 원죄·추락·탄생·결혼·죽음·부활 등을 주제로 “밤의 무의식의 백과사전적 지식의 총화”를 이룬다. 65개국어가 조합돼 있고 사용된 어휘가 6만4천여개에 달하는데다, 한쪽에 36행씩 628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이 작품은 그 무게와 다루는 범위에서 단테의 《신곡》에 비견해 ‘인간곡’이라는 이름도 얻었다. 《율리시스》의 ‘낮의 의식의 흐름’에 맞춰 이 책에는 ‘밤의 무의식의 흐름’이라는 설명이 늘 따른다.

“조이스의 《율리시스》번역을 마친 1988년부터 《피네간의 경야》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평균 반쪽 정도만 번역할 수 있었죠. 영어·독어·불어·라틴어·회랍어 등 각종 사전을 1~2백회 이상 들춰야 했으니까요. 참고한 서적은 50여권이고 아일랜드 현장답사도 10여차례 했습니다. 번역 문제로 참가한 국제회의도 세차례에 이릅니다.”

이 책은 세계문학사상 최고 난해작으로 꼽히는 조이스의 마지막 작품이다. 65개국어를 혼용하고 가능한 모든 기법과 문체를 실험해 얻은 대서사시다. 김종건 교수는 조이스가 17년 동안 집필한 이 작품을 13년 세월을 녹여 세계에서 네번째로 완역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김교수는 조이스의 4대 걸작을 모두 번역하는 유례 없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여전히 김교수의 책상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피네간의 경야》 원서는 하도 여러번 읽고 들춰서 그런지 책장이 말갱게 비친다. 행간에 덧붙인 잘고 단정한 불펜 글씨도 기름이 곱게 번져 있다. 사전에는 손때와 세월때가 묻었고, 컴퓨터 자판에는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다.

작품의 원제인 ‘Finnegans Wake’에서 wake는 ‘장례식 전의 철야’로 경야(經夜), 즉 ‘장사 지내기 전에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이 죽은이의 관 곁에서 밤새움하는 일’이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기질이 우리와 무척 비슷해 죽음을 잔치나 축제로 승화한다. 민요 《피네간의 경야》에서 “그는 사다리에서 떨어져 두개골을 깨었으니 / 고로 모두들 그를 날랐는지라, 그의 시체를 경야어로 / 모두들 그를 말끔하고 깔끔한 천으로 단단히 묶었대요 / 그리고 그를 침대 위에 눕혔는지라 / 발치에는 한 깰런의 위스키를 / 그리고 머리맡에는 한 통의 맥주를”이라고 노래하는데, 시신을 수습하고 술판을 벌이는 광경이 우리와 닮았다.

### ‘신화배경’으로 다양한 이야기 구사해

조이스가 제목과 틀을 따온 《피네간의 경야》의 피네간은 벽돌운반공이다. 어느날 그는 술에 취해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는데, 경야(經夜) 중에 누군가 시체 위에 엮지른 술로 다시 소생하게 된다. 이처럼 이어위커는 더블린 근교 자신의 술집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술찌꺼기를 먹고 취해 잠들고, 밤새 복잡한 꿈속을 거닐다 피네간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잠이 깬다.

《피네간의 경야》에서는 피네간이 되살아나는 광경을 “미키 마로니가 그의 머리를 쳐들자 / 그때 한 깰런의 위스키가 그에게 날렸대요 / 그것이 빗맞자, 침대 위에 떨어지면서 / 술은 팀 위에 뿌려졌대요 / ‘아호, 그가 되살아났도다! 그가 일어나는 걸 봐요!’ / 그러자 티모시, 침대로부터 경중 뛰면서 / 말했대요”라고 노래한다. 《피네간의 경야》에서 이어위커의 ‘회귀’는 “성화聖和! 성화! 성화! 모든 여명黎明을 부르고 있나니, 모든 여명을 오늘어로 부르고 있나니, 오라이(정렬整列)! 발기發起! 전부全富의 청혈세계淸血世界에로 애란이어위커를”

이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피네간의 경야》는 《율리시스》와 마찬가지로 신화를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이를 ‘신화배경’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살기 어렵고 부정적인 현실이 신화의 화려한 코미디를 배경으로 하면 좀 낫게 보이는 것이죠. 또 신화의 영원한 주제인 죽음과 부활이 지은이가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합니다.”

이런 ‘신화배경’은 주인공 이어위커의 꿈과 현실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만 알려주는 이어위커의 ‘부끄러운 과거’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에 연결돼 끊임없이 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또 날마다 싸우는 쌍둥이 아들 쉘과 손은 지극히 예술적인 선비와 세속적인 사내, 카이사르와 부르투스, 베짚이와 개미 등 상반된 짝으로 등장해 독자들이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와 전혀 모르는 이야기 사이를 헤집는다. 딸 이씨는 수많은 변형된 인물로 등장해 부모·형제의 심리를 파악하고 대변한다.

험프리 침던 이어위커(HCE 또는 포터씨)와 그의 아내 아나 리비아 플루라벨(ALP 또는 포터 부인), 쌍둥이 아들 쉘과 손, 딸 이씨. 이들은 조이스의 ‘언어적 특성’에 맞춰 그 이름도 중요한 의미를 띠며 변형한다. 특히 아나 리비아 플루라벨은 그 이름이 무척 독특하고 아름다우며 작품 전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아나는 아일랜드 말로 ‘강’이고, 리비아는 강의 원류를 뜻하는 리페(Liphe)에서 유래했으며, 플루라벨은 ‘가장 아름다운’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다. 조이스는 “강은달리나니”라는 첫 구절의 대구처럼 “그러나 살며시, 기억수記憶水할지라!...”로 마지막 구절을 삼아 아나 리비아 플루라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 지은이의 뜻 제대로 옮기기 위해 애써

원저와 똑같이 한쪽에 36행, 628면을 맞추기 위해 각 페이지마다 문단의 폭을 달리한 이 두꺼운 책을 펼치면, 첫 구절부터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강은달리나니, 이브와 아담 교회를 지나, 해안의 변방邊方으로부터 만灣의 굴곡까지, 회환回還의 광순환촌도廣循環村道 곁으로 하여, 호우드(H)성城(C)과 주원周圍(E)까지 우리들을 되돌리도다”는 어떻게 든 넘어가 보자. 하지만 “사랑의 재사才士, 트리스트람 경卿, 단해短海 너머에서부터, 그의 남근반도고전男根半島孤戰을 재회투再揮鬪하기 위하여...”부터는 ‘해독’을 요구하니 옥편을 손에 들고도 난감하다.

범우사/B5변형/656면/35,000원

“조이스는 한 소설 속에 동서고금의 역사·철학·문화를 모두 넣으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분량이 될 테고, 내용을 줄일 수 없으니 말을 줄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조이스의 ‘경야어’(經夜語)가 탄생했습니다.”

이 책에는 peninsolate war, funferall, gorupper 등 영문학 전공자가 봐도 잘 알 수 없는 말들이 지천이다. funferall은 funeral+fun+for+all로 김교수는 이를 만흥장례(萬興葬禮), 즉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장례라고 풀이한다. 이렇게 조이스와 김교수 짝이 펼치는 언어 유희는 promptly에서 절정을 이룬다. promptly(신속(迅速)하게)와 prudently(신중(慎重)하게)의 결합인 이 말을 김교수는 ‘신속(愼速)하게’라고 간단히 넘겨버린다.

“작품을 번역하기 위해 단어 하나를 끊임없이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하지만, ‘경야어’의 응축을 절대로 풀어쓰면 안됩니다. ‘경야어’가 지니는 응축성·시각성·시성·몸짓은 풀어쓰는 순간 소멸합니다. 그 때문에 한자를 쓴 것입니다. 한글은 산문성격이 강해 ‘경야어’를 제대로 옮길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교수가 적절히 쓴 ‘하야’ ‘할지니’ ‘이도다’ ‘하노라’ 등 우리 옛말은 고풍스러운 멋이 살아 ‘경야어’를 뒷받침한다. 욕심 많은 지은이도 그의 뜻을 잘 알고 풀어주는 옮긴이가 없다면 제 뜻을 널리 펼치지 못할 것이다. 김교수 덕분에 원전의 복잡성과 색깔, 유머가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그런데 이런 조어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며 김교수는 몇가지 예를 든다. 라볶이, 불버거, 레포츠. 이들은 모두 라면과 떡볶이, 불고기 버거, 레저스포츠로 손쉽게 ‘독해’할 수 있는 말들이다. 김교수는 ‘경야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어렵게 여겨질 뿐, 실제 쓰임과 탄생은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다며 ‘경야어’ 해독을 은근하게 권유한다.

—차정신기자

### “조이스는 내게 ‘팔자’”

“안고 잔 적도 있어요. 이리보고 저리보고 모로 세워 보고, 벽에 붙여 세워 보기도 했죠. 전철에서 읽다가 내릴 역을 지나친 적도 있어요. 찾집에 들어가 주인에게 이 책 어떻소 묻고는 근사하다 하면 차도 한 잔 샀구요.”

김교수가 《피네간의 경야》가 나왔을 때의 감흥을 들려준다.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라고 선뜻 이야기한다. 그 말에 설렘과 감격이 수줍게 배어 나온다. 그러나 다음 작업에 대한 질문에 이내 눈이 깊어진다.

“‘조이스와 더불어’ 정도가 될까요? 왜, 언제부터 조이스와 함께 했는지 총괄하는 책이에요. 조이스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 공부해도 또 공부거리가 있을 정도로 무진장이고, 조이스는 내게 ‘팔자’입니다.”

영문학을 공부하면서 외국문학인 까닭에 품이 배는 들어 가끔 회의가 들 때도 있다고 한다. 문학 이전에 언어를 알아야 하는 고충이 다른 학문을 하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셰익스피어 이상이라고 자부하는 평생지기 조이스를 만나 학문하는 삶이 즐거웠고, 이제 조이스와 함께 지낸 반평생을 돌아볼 계획이라고 한다.

